



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
제5기 연세 인권 앰배서더

연세대학교 내 키오스크로 알아보는 인권



수업이 끝나고 밥을 먹기 위해 도착한 **학내 식당**에서,
졸음을 이겨내기 위한 커피를 사기 위해 들른 **카페**에서,
다양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 **학내 매점**에서,
우리는 연세대학교 곳곳에서 **키오스크**를 통해
식사, 음료, 물건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.



터치 몇 번으로 간단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키오스크는 과연 모두에게 편안한 기계일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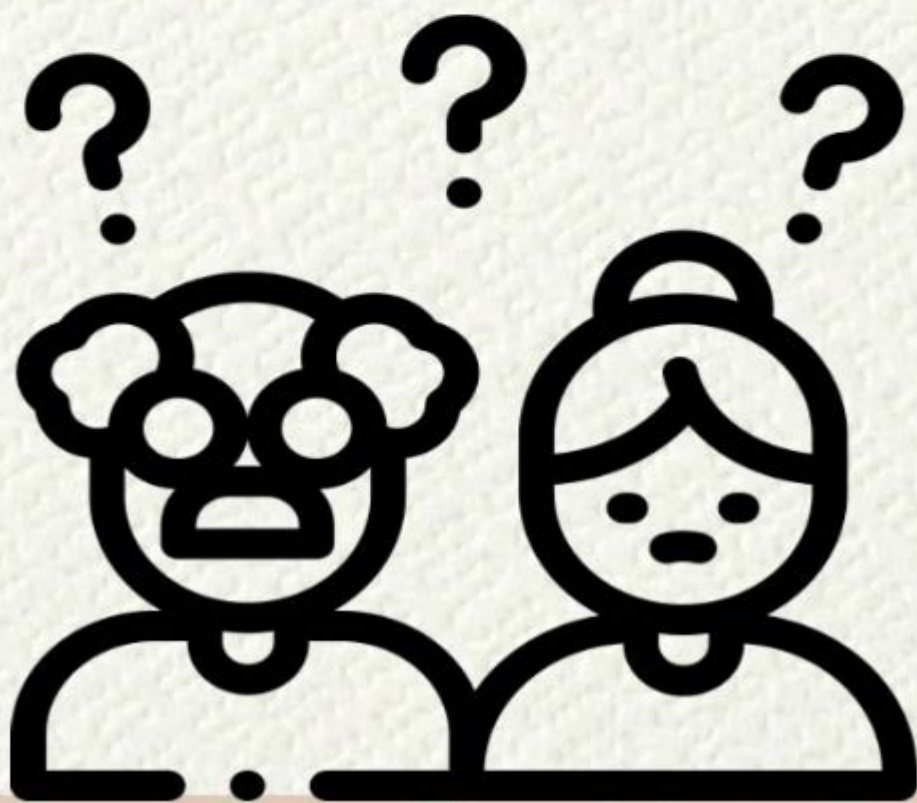
햄버거를 주문을 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리는 어르신들,
별도의 안내가 없는 주차장 무인계산기 앞에서
어려움을 겪는 차주처럼

디지털 약자층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
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.



디지털 약자층은 전자기기 사용이 서투른 **노년층**,
고가의 전자기기 구입이 어려운 경제적 **취약계층**,
정신적·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**장애인** 등이 포함됩니다.

디지털 격차로 인해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
상황은 **인권침해**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

KSKSKSKS
KSKSKSK
KSKSKS
KSKSK
KSKS
KSK
KS

KS X 9211

KS

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
KS X 9211:2022

산업표준심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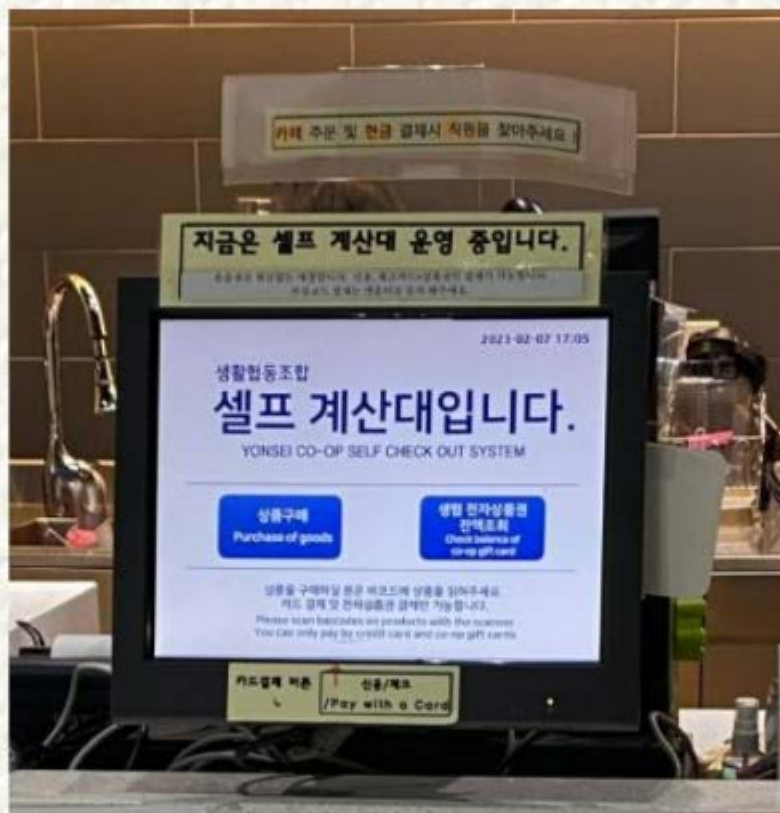
2022년 02월 25일 개정

한국산업표준(KS)의
'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지침'은
일상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를
비장애인뿐만 아니라,
장애를 지닌 사용자나 고령자도
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
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입니다.

해당 표준에 따르면 키오스크는 시각 혹은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,
발생이 어려운 사람도, 미세한 움직임이 어려운 사람이라도
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

즉 모두를 위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.

그렇다면 연세대학교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어떨까요?



키오스크 첫 화면에서 **이용방법**을 찾을 수 있었지만,
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의
대체 콘텐츠를 적용한 키오스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.



이외에도 **휠체어**를 탄 이용자가 이용하기에
상당히 **높은 화면**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.

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
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
모두가 **동등한 접근성**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.

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**대체 콘텐츠** 도입
낮은 위치의 키오스크 도입
한국산업표준기준에 따른 **글자크기 확대** 등의
노력을 통해 연세의 모든 구성원의
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

참고문헌

한겨레, '주차장 키오스크 앞에서 1시간 헤매...표준 안 지켜 '약자들' 골탕', 2022.11.24
한국산업표준,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(KS X 9211: 2022)



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
제5기 연세 인권 앰배서더